

폴란드-우크라이나의 과거사 문제 연구 : 보위인 학살 사건을 중심으로*

김 용 덕

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어과

< 목 차 >

- | | |
|-------------------------|----------|
| I. 들어가는 말 | V. 나오는 말 |
| II. 우크라이나 역사 속에서의 폴란드인들 | 참고문헌 |
| III. 보위인 학살 | Abstract |
| IV.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와 OUN-UPA | |

Key words(중심용어): 폴란드(Poland), 우크라이나(Ukraina), 보위인 학살(The Massacres of Poles in Volhynia),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들협회(OUN), 우크라이나봉기군(UPA)

국 문 요 약

이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단체가 보위인 지역에 살던 폴란드인들을 대량 학살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폴란드-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과거사 문제이다. 1939-1946년 사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단체인 OUN과 UPA 그리고 이들과 공조하던 우크라이나 농민 부대가 보위인과 소폴란드 지역에서 모두 12만 명의 폴란드인을 살해했다. 희생자들 중에는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포함됐으며, 수천 개에 달하는 폴란드 농촌과 수십만에 이르는 가정도 함께 파괴됐다. 보위인과 소폴란드 지역에서 OUN-UPA가 자행한 학살은 그 잔인함과 규모로 인해 폴란드에서 인종 학살로 규정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내세운 이데올로기, 진행 과정, 범위와 규모 등은 모두 보위인 학살이 폴란드 민족을 말살시킨다는 목적 하에 사전에 조직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 붕괴이후 폴란드-우크라이나 관계는 우호와 악화를 거듭했다. 특히 보위인 학살 사건을 둘러싼

* 이 논문은 폴란드 자료를 바탕으로 폴란드인 관점에서 작성됐다. 때문에 본 저자는 논문의 내용 일부가 과장됐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특히 피해자 숫자에서는 더욱 그러할지 모른다. 향후 우크라이나어를 구사하는 관련 전공자에 의한 반론 및 오류 지적을 기다리는 바이다. 지명 및 인명 등 고유 명사는 폴란드어를 기준으로 표기됐다. 괄호안의 외국어 명칭은 각각 폴란드어, 우크라이나어, 영어 순으로 기재했음을 밝힌다.

양국의 주장은 첨예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양국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해답을 모색하자고 나서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들이 살아있는 한, 보위인 학살에 대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양 민족이 모두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보인다.

I. 들어가는 말

지정학적으로 독일의 서쪽에 위치하는 폴란드는 게르만 민족의 동방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가운데 성장해갔다. 이런 폴란드도 자신만의 고유한 "Drang nach Osten"이 있었으니, 바로 우크라이나 지역을 향한 팽창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고래로 폴란드를 둘러싼 사면 중 바다인 북쪽을 제외하면 동쪽이 가장 약한 부분이었다. 그중에서도 현재 우크라이나가 위치한 동남쪽 방향이 폴란드로서는 팽창하기에 유리한 최적의 부분이었다. 서쪽에서 독일로부터 입은 손실을, 폴란드는 동쪽에서 우크라이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보상받곤 했다. 때문에 폴란드가 동쪽으로 활발히 진출할 때면 국력이 강해짐을, 그 반대의 경우에는 쇠약해짐을 의미했다. 번성하던 키예프 루스가 몽골 침공으로 쇠망한 뒤, 우크라이나 지역은 폴란드 팽창의 대상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13세기에 이 지역을 둘러싸고 폴란드와 헝가리가 경쟁하던 와중에, 양국이 연맹을 맺어 하나의 나라로 합친 적도 있었다. 그 후 헝가리와와의 연합은 다시 리투아니아와의 연합국 체제로 이어졌다. 16세기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대거 진출하며, 자신들의 상위 문화를 토착민들에게 강요하는 동화 정책을 펼쳤다. 이후 폴란드-리투아니아 이원 체제를 우크라이나를 포함하는 삼원 체제로 변경하자, 우크라이나인들의 요구를 폴란드는 냉정하게 거절했다. 유럽 선진 문화권에 속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폴란드 귀족들의 눈에, 우크라이나 코사크는 그저 미개한 농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슬라브 형제국으로 친밀하던 양국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당연했다. 결국 1654년에 차르에게 원조를 요청하며 우크라이나가 방향을 급선회하고, 그 결과 드네프르 좌안 지역이 러시아 영향권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후 폴란드가 패망하면서 나머지 우크라이나 지역도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양분됐다. 19세기말에 이르면 우크라이나인 사이에서 민족의식이 자라나며,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르 우안 지역이 1918년에 재건하는 폴란드에 다시 귀속된다. 123년에 걸친 식민지 끝에 다시 나라를 되찾은 폴란드로서는 단 한 조각에 불과할지라도 예전 영토를 포기할 의향이 전혀 없었다. 이제 우크라이나 또한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길 간절히 원하면서 양국 관계는 적대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우크라이나인들의 울분이 대대적으로 분출한 것이 바로 보위인 학살 사건이다. 자력으로 나라를 세울 수 없던 우크라이나인들로서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은 좋은 기회였고, 따라서 당시 나치 독일에 적극 협조했다. 그리고는 이제 장차 자신들이 나라를 세우게 될 영토로부터, 외부 요소, 그중에서도 제일의 적으로 간주하던 폴란드인들의 제거는 필수적이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보위인 학살이 일어난 것이다.

이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단체가 보위인 지역에 살던 폴란드인들

을 대량 학살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은 마치 한국-일본 사이에서의 정신대 문제와 마찬가지로 폴란드-우크라이나 관계에서 과거사 논쟁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문제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증거와 문헌 자료들을 위시로 논문과 저서들이 계속 출간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에 들어와 소련을 위시로 동유럽권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과거 양국 역사에서 금기시되던 사안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더욱 두드러졌다.¹⁾ 최근에 발간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단체가 수만 명에 달하는 폴란드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원인은 무엇인가, 보위인 학살의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가, 현재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가, 등을 살피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II. 우크라이나 역사 속에서의 폴란드인들

폴란드인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등장한 시초는 키예프 루스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키예프 루스 시절 인접국들의 상인들이 현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오곤 했다. 이들은 당시 키예프와 할리쯔(Halicz, Галич, Halych)²⁾ 지역 공들의 궁정에서 일했다. 게다가 선교사들도 종교 전파의 목적으로 이 지역을 찾아왔다. 이외에도 폴란드와 루스 지역 공들이 혼인을 통해 관계를 맺곤 했다. 830년대 초에 키예프 대공인 야로슬라프 현명공(Ярослав Мудрий, Yaroslav I the Wise, 978-1054)이 폴란드 포로들을 자국 내에 정착시킨 일은 유명하다. 13세기에 몽골의 침입으로 키예프 루스가 패망한 뒤, 14-15세기까지 현 우크라이나 지역의 황폐화는 계속됐다. 크림한국의 타타르족이 정기적으로 침공하면서 루스 남부 지역이 무인 지대가 되어간 것이다. 이렇게 세력이 약해진 루스 지역은 무력을 앞세운 폴란드 팽창의 손쉬운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폴란드인들이 도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폴란드 대귀족들도 영지를 확대하며 서서히 세력을 키워갔다. 그 결과 루스 지역에서 폴란드 문화와 예술이 번창해갔다. 보위인(Wołyń, Волинь, Volhynia)³⁾과 키예프 지역이 리투아니아대공국에 속하던 시절에, 소규모이긴 하나 폴란드 요소가 이 지역으로 침투해들어가기도 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가 가까워지며 폴란드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루스-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 폴란드인이 정착하는 다음 단계는 폴란드의 카지미에쉬 대왕(Kazimierz III Wielki, Casimir III the Great, 1310-1370)이 할리쯔 루스 지역을 정복하면서 찾아왔다. 카지미에쉬 대왕은 정복한 대다수 지역을 폴란드 귀족들에게 하사했다. 그 결과 소폴란드(Małopolska)⁴⁾ 농민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오며 정착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그리고 새로 세워

1) 특히 주목할 만한 저서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Józef Turowski & Władysław Siemaszko, *Zbrodnie nacjonalistów ukraińskich dokonane na ludności polskiej na Wołyniu 1939-1945*, Warszawa, 1990; Władysław Siemaszko & Ewa Siemaszko, *Ludobójstwo dokonane przez nacjonalistów ukraińskich na ludności polskiej Wołynia 1939-1945*, Warszawa, 2000.

2) 우크라이나의 서남부 지역과 폴란드의 동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역사적 지명이다.

3) 부그(Bug)강 상류 지역과 드네프르(Dnepr)강 지류들이 합치는 지역을 가리키는 역사적 지명이다.

4) 폴란드 동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역사적 지명으로 한때 폴란드의 수도였던 크라쿠프(Kraków)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는 도시들로 독일과 아르메니아인들 외에 폴란드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이 대거 도입됐다. 폴란드-가톨릭의 영향으로 루스 귀족들이 상위 문화인 폴란드에 동화되는 현상도 생겼다. 반면 폴란드 농민들과 소귀족들은 다수 민족인 루스인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관습을 받아들였다. 루스에 동화된 폴란드인과 토착 루스인을 구분 짓는 차이점은 단지 종교뿐으로 나머지는 동일했다. 동부로 진출하며 현지에 동화되던 폴란드인들이 고수하던 단 하나는 가톨릭 신앙뿐이었다.

1569년에 폴란드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이주하고 정착하는데 있어 전환점이 찾아왔다. 바로 이 해에 폴란드 도시 루블린(Lublin)에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기존의 느슨한 인적 연합에서 실질적인 국가 통합으로 가는 조약을 맺고 공동연방제(Rzeczpospolita, Commonwealth) 체제를 탄생시켰다. 폴란드왕국과 리투아니아대공국으로 구성된 공화국 안에서 폴란드가 보위인, 키예프 등 우크라이나 지역을 차지하게 됐다. 그 후 폴란드는 이 지역에 자신들의 정치, 사회, 법률 체제를 대대적으로 도입했다. 왕에 대한 충성으로 아니면 의회의 결정이나 매수 또는 강탈 등의 방식으로 폴란드 귀족들이 대규모 영지를 차지해갔다. 이들 귀족 지주들은 폴란드 중앙과 갈리치야(Galicja, Галичина, Galicia)⁵⁾ 지역으로부터 농민, 유대인, 집사, 병사 등을 새로운 영지로 도입했다. 이런 식으로 루블린협정 이후 우크라이나 지역으로의 대대적인 폴란드인 이주가 시작했다. 그 결과 곳곳에서 국부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충돌은 나중에 가서 민족 문제로 발전해갔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거주하던 영토가 폴란드-리투아니아공화국이라는 강력한 단일 국가 체제에 합병되면서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모스크바나 타타르의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인들이 보호받게 된 것도 그런 점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폴란드 귀족들이 주도하던 이주 정책이 강화되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상위 폴란드 문화에 동화되는 현상이 더욱 강해졌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귀족 계층이 가톨릭 신도로 개종하고, 폴란드 문화와 전통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 1648년에 코사크와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보흐단 흐미엘니츠키(Bohdan Chmielnicki, Богдан Хмельницький, Bohdan Khmelnytsky, 1595-1657)의 지휘아래 폴란드 귀족 통치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켰다. 1655년까지 계속된 코사크 봉기 와중에 가톨릭 신부들과 함께 많은 폴란드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와 함께 봉기군들이 장악한 지역으로부터 폴란드 귀족들이 도망갔다. 코사크 봉기 후 드네프르강 좌안 지역에서 폴란드인들이 사라지게 됐으며, 18세기 초에 와서야 비로소 우안 지역에도 폴란드인들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 18세기에 들어와 다시 폴란드 대귀족들의 영지가 우크라이나 내에 대대적으로 늘어나며 폴란드 문화도 발전을 거듭하게 됐다. 게다가 폴란드 소귀족과 농민 그리고 도시민과 함께 수공업자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다시 몰려들었다. 하지만 1768년에 폴란드 귀족들과 가톨릭에 반대하는 코사크 봉기가 다시 일어났다. 그 결과 수많은 폴란드인과 유대인이 살해되며 이주 물결이 멈추게 됐다.

1795년 폴란드-리투아니아공화국이 패망하던 당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보위인, 포돌레(Podole, Поділля, Podolia),⁶⁾ 키예프)에는 대략 25만 명의 가톨릭 신도들이 살고 있었다. 이 지역 전체 인

5) 폴란드 삼국분할 당시 오스트리아가 점령한 식민 지역을 가리키는 지역으로 폴란드 동남부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걸쳐있다. 예전 할리츠공국에서 그 명칭이 유래한다.

6) 드네프르강 가운데로 흐르는 북부 지류와 부흐(Boh, Південний Буг, Southern Bug)강 상류 지역을 가리키는 역사적 지명이다.

구의 11%에 해당하던 이들은 대다수 폴란드인들이었다. 20세기 초에 들어오면 이들의 숫자는 80만 명으로 늘어나며 전체 인구의 6-8%에 이르게 된다. 러시아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들 폴란드인들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경제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이 지역 폴란드인들은 보유하던 토지를 지켜내는데 성공하며, 1861년 러시아의 농노제 폐지이후 조성된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며 계속 발전해갔다. 19세기 말에 이르면 폴란드인들은 우크라이나의 40%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이외에도 폴란드 지역으로부터 의사, 기술자, 변호사, 군 장교 등 고급 인력들이 출세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으로 진출해 들어갔다. 러시아의 식민 통치에 반대해 폴란드가 1830년과 1863년에 봉기를 일으키나 모두 실패했다. 그 결과로 우크라이나에 살던 폴란드인들 또한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학교와 수도원 등 폴란드 기관들이 폐쇄당하고, 봉기 참여자들은 재산을 몰수당한 후 시베리아로 유배됐다. 폴란드 귀족들도 지위를 박탈당하고 강력한 러시아 동화 정책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전 폴란드왕국 지역으로부터 우크라이나로 피신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전후 1921년까지 대다수가 새로 탄생하는 폴란드로 돌아갔다. 러시아에서 차르 체제가 무너지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지역에는 대략 50만 명의 폴란드인들이 남아있었다. 이들은 장차 1920년대에 대대적으로 실시되던 소비에트 동화 정책의 대상이 됐다. 그나마 이런 동화 정책도 1933년부터 1938년까지 실시된 탄압 정책으로 전환되며, 우크라이나 지역에 남아있던 폴란드인들은 직위 박탈과 강제 이주, 유배와 총살 등과 같은 강력한 탄압을 받게 됐다.(Serczyk 1979)⁷⁾



(지도 1) 1939-1945년 사이 폴란드와 OUN-UPA의 학살 영역

(- 1939년 폴란드 국경, ... 1945년 국경, --- 주 경계선, /// OUN-UPA의 학살 영역)

7) 이외에도 한국어로 된 자료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한국우크라이나학회, 『우크라이나의 이해-역사, 종교, 정치, 경제, 외교, 우크라이나의 모든 것』, 씨네스트, 2009; 홍석우, 『우크라이나-코자크와 오렌지혁명의 나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8; 한정숙, 『유랑시인-우크라이나의 역사와 시정』, 한길사, 2005.

Ⅲ. 보위인 학살

폴란드 삼국분할 당시 오스트리아 식민지에 속하던 지역에서 19세기말부터 독립 열망과 함께 우크라이나 민족의식이 자라났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또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울 기회를 발견했다. 문제는 양 민족 모두 수 백 년에 걸쳐 공존해오던 동일한 지역을 자신들이 세울 국가의 영토로 간주한데 있었다. 이런 배경 하에 1918-1919년 사이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갈리츠야라 불리던 소폴란드 동부 지역, 특히 르부프(Lwów, 현 우크라이나 리보프 Львів, Lviv)를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결과는 폴란드의 승리와 함께 1918년 11월에 독립을 선포한 서우크라이나인민공화국의 패망으로 종결됐다. 반면 키예프에서 선포된 우크라이나인민공화국은 폴란드에 의해 인정받았다. 1920년 폴란드-소비에트러시아 전쟁 당시 5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걸치는 하나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인민공화국이 소비에트에 맞서 공동 전선을 펼치기도 했다. 1921년 리가에서 폴란드가 소련 그리고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과 평화 조약을 맺으며, 보위인과 소폴란드 동부 지역이 폴란드 영토가 됐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인민공화국은 폴란드로부터 배신을 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재생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소수 민족을 이루며, 동남부에 있는 4개 주 - 보위인(68%), 스나티스와부프(Stanisławów, 68.9%), 타르노폴(Tarnopol, 45.5%), 르부프(34.1%)에서 주로 거주했다. 반면 동일한 지역에서 폴란드인은 타르노폴(49.3%)과 르부프(57.7%)를 제외하면 보위인(16.6%)과 스나티스와부프(22.4%)에서 소수 민족에 불과했다. 나머지 소수 민족은 유대인, 독일인, 체코인, 러시아인, 아르메니아인 등이었다.(Grünberg & Sprengel 2005, 320-321)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인들은 폴란드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이런 점은 특히나 소폴란드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123년에 걸치는 삼국분할 끝에 재생한 폴란드로서는 당시 무엇보다 영토 통합과 함께 국토 보존이 가장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각기 추구하는 방향은 상호 타협이 불가능한 대척점에 있었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는 더욱 더 극단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에 들어오면 테러 조직인 우크라이나군사조직(Ukraińska Wojskowa Organizacja, UWO, Українська Військова Організація, УВО)이 전면에 등장하며 사보타지와 암살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 조직은 1929년에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들협회(Organizacja Ukraińskich Nacjonalistów, OUN, Організація Українських Націоналістів, ОУН)으로 바뀐 뒤, 폴란드에 대한 테러 활동을 증대하고 우크라이나 대중들 사이에서 반폴란드 선전과 선동을 강화시켜나갔다. 드미트로 돈초프(Dmytro Doncow, Дмитро Донцов, 1883-1973)가 제창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이론인 극단적 파시스트 독트린이 OUN의 이데올로기로 채택됐다. OUN의 주 임무는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한 투쟁에 있었다. 하지만 이런 우크라이나는 민족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이어야만 했다. 때문에 장차 우크라이나 국토가 되는 지역으로부터 비-우크라이나인들, 특히 폴란드인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건국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됐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될 과정 중에는 대량 학살도 포함돼있었다. 1939년 8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제2차총회에서 발표된 결의문 속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돼있었다. "우크라이나인들만을 위한 우크라이나! 단 한줌의 땅일지라도 적이나

외부인의 수중에 우리의 영토를 남길 수 없다!" OUN의 이런 반폴란드적인 활동은 자연히 폴란드 정부로부터 탄압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가해진 압박과 탄압으로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OUN은 이런 상황을 다시 자신들의 선전 선동에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폴란드 정부의 강경한 탄압으로 OUN이 지하로 잠적하며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지지를 넓혀갔다.(Grünberg & Sprengel 2005, 422-424) 1930년대와 제2차 세계대전 초기까지 OUN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독일과 협력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바이마르공화국과, 이후 1933년부터 나치 독일과 OUN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다. 폴란드와 소련이라는 양대 강국에 둘러싸인 우크라이나로서는 독일의 원조를 기대하는 것 외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한편 폴란드 국내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내부 공모자로 이용하기위해, 독일은 OUN에게 자금을 대며 지원했다.

1939년 9월 1일의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폴란드는 독일, 소련 양쪽으로부터 침공을 당했다. 그러자 마침내 때가 왔다고 판단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동남부 국경 지대에서 후퇴하는 폴란드 군인, 경찰, 공무원 그리고 피난민들을 공격하며 물건을 빼앗고 살해를 일삼았다. 이 첫 번째 살해 물결은 소련이 진주하고 행정을 장악하면서 멈추었다. 한편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뒤, OUN이 르부프에서 우크라이나 독립을 선포하나 실패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 폴란드 영토 중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거주하던 지역 전체가 독일의 점령 하로 들어가며, OUN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다. 나치 점령 당국은 우크라이나인들을 독일 군대에 입대시키는 한편, 폴란드인들을 탄압하는 게슈타포 활동에 우크라이나인들과 공조를 취했다. 때로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독자적으로 펼치는 반폴란드 테러 활동을 용인하기조차 했다. OUN은 조직망을 늘리고 당시까지 사이 좋게 지내던 폴란드 이웃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선전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학살 준비를 강화시켜나갔다. "Smert', smert', lacham smert', smert' moskowsko-żydiwskij komuni"("죽음을, 죽음을, 폴란드인들에게 죽음을, 죽음을, 죽음을, 모스크바-유대 공산주의에게 죽음을"). 이것은 OUN 전투 조직과 우크라이나경찰들이 당시 애창하던 군가의 후렴부이다.(Wojskowy Przegląd Historyczny 1988, 130; Peretiatkowicz 1997, 53) 나치 점령 당시 독일 당국의 후원아래 OUN이 주도한 최초의 학살은 1941년 6월말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이 와중에 자발적으로 탄생한 우크라이나민병대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유대인 학살을 자행했다. 희생자 중에는 폴란드 지식인들도 다수 포함됐다. 1941년 가을에 독일 당국이 민병대를 해체하고, 이들을 주축으로 우크라이나경찰을 조직했다. 하지만 이들은 실상에 있어 우크라이나경찰은 OUN의 통제 아래 있었다. 1941-1943년 사이 나치 점령 당국은 우크라이나 경찰의 적극적인 공조 아래 대대적인 유대인 제거 작업에 나섰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숨어있던 유대인일지라도 우크라이나 현지 주민들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발견한 유대인을 나치 점령 당국과 경찰에 넘기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손으로 처분했다. 보위인에서만 대략 15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되고, 갈리츠야에 거주하던 45만5천 명의 유대인은 현장에서 살해되거나 강제수용소로 이송됐다.(Grünberg 1991, 508) 유대인 학살을 통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다음 단계인 폴란드인 제거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됐다.

1942년 후반기에 들어와 OUN이 보위인에 거주하던 폴란드인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해나기 시

작했다. 여기에는 후에 가서 우크라이나봉기군(Ukraińska Powstańcza Armia, UPA, Українська Повстанська Армія, УПА)이라 불리게 되는 빨치산 조직을 이용했다. 초기에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살해됐다. 1943년 2월에 열린 OUN 제3차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비(非)우크라이나인들을 모두 제거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을 근거로 OUN 활동 지역에 살고 있던 비우크라이나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이루고 있던 폴란드인들이 대대적으로 살해되는 학살이 현실화됐다. 최초의 폴란드인 대량 학살은 1943년 2월 9일 사르니(Sarny)군에서 일어났다. 파로실라(Parośla)라 불리는 폴란드 마을이 소련 빨치산 부대로 위장한 UPA 부대에 의해 전멸됐다. 이날 150명 이상의 마을 사람들이 도끼 등으로 잔인하게 살해됐다. 마을 밖에 나가있던 몇몇 사람들만이 목숨을 건졌다. 폴란드인들에 대한 공격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며 이제 마을 단위로의 학살이 시작했다. "폴란드 마을 5곳을 포위한 뒤, 밤새 그리고 다음날까지 불 지르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주민 모두를 죽였다. 모두 합치면 2천명이 넘었다. ... 우리는 폴란드인들을 산채로 마을에 있는 우물 안으로 집어던진 뒤, 총을 난사해 죽였다." 이는 전후 체포된 UPA 단원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이다.(Motyka 2006, 313-316) 1943년 4월에 독일 통제 하에 있던 우크라이나경찰대에서 수천 명이 탈영해 UPA에 가세하며 동시 다발적인 공격을 원조했다. 이외에도 OUN은 우크라이나 농민들로 구성된 부대(Samoobronni Kuszczowi Widdiły, SKW)를 창설했다. 이들은 평소 농사를 짓다가 OUN이나 UPA가 명령을 내리면 폴란드 마을을 제거하는 작전에 동원됐다. 폴란드인들은 소수 민족이었고 게다가 독일 점령 당국의 탄압을 받던 관계로, 우크라이나 학살에 조직적으로 대항할 수가 없었다. 일부에서 폴란드 자위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나 화력이나 수적인 면에서 절대 열세인 관계로, 극소수 지역에서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다. 학살에 맞서 보위인에 폴란드 빨치산 부대가 조직됐을 때는, 이미 수많은 폴란드인이 살해된 후인 1943년 후반기로 일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943년 내내 OUN-UPA가 보위인 진역에서 폴란드 마을을 차례대로 파괴시켜나갈 수 있었다.

1943년 7월과 8월에 대대적인 학살이 그 절정에 이르렀다. 7월 11일 일요일에 브워취미에쉬(Włodzimierz, Володимир)와 호로후프(Horochów, Горохів)군에 있는 96개 마을이 동시에 습격당했다. 이중에는 미사 중이던 성당 5곳도 포함됐다. 그 다음날에는 다른 곳에서 75개 마을이 공격당했다.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UPA에 의해 코스토폴(Kostopol, Костопіль)과 사르나군 내 33개 마을이 완전 파괴됐다. 7월 30일과 31일에는 사르나군에서 다시 22개 마을이 공격당했다. 8월말에 UPA는 7월과 같은 규모로 폴란드인들을 공격하며,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브워취미에쉬, 코벨(Kowel, Ковель), 호로후프, 루보믈(Luboml, Любомль) 등 4개 군, 85개 마을에서 학살을 자행했다. 이런 식으로 소련이 보위인 지역을 점령하는 1944년 초까지 공격과 학살이 계속됐다. 당시 OUN-UPA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직자들마저 잔인하게 살해했다. 살인 대상에는 폴란드-우크라이나 다문화 가정도 포함됐다. 다문화 가정이 모두 살해되거나 아니면 그중에서 폴란드인만 제거되곤 했다. 가톨릭에서 동방정교나 우니아트로 개종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심지어 폴란드어를 못하는 사람들마저 살해됐다. 이들은 살해되기 전에 잔인한 고문, 예를 들면 신체 절단하기, 눈알 빼기, 배 가르기, 산채로 화장하기 등에 시달렸다.(Gawryś 1997, 49; Cybulski

1974, 14) OUN-UPA는 학살 현장에서 아니면 그 후에 재산을 강탈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집과 성당 그리고 공공 기관을 불살랐다. OUN-UPA가 폴란드인들을 최대한으로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무자비한 잔인성은, 1943년에 작성된 다음과 같은 폴란드 지하 조직의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위협을 감지한 폴란드 이웃들과 대화하며 안심시키려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겁낼 이유가 없다며 폴란드 이웃들을 안심시켰다. 이들은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이웃사촌들이었다. 만약 폴란드인 누군가 마을에서 도망치는 경우 그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했다. 폴란드인이 우크라이나 농촌을 벗어나는 경우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반복해서 위협했다. 이런 식으로 학살의 마지막 날까지 폴란드인들이 경계심을 갖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인들이 단합했다."(Siemaszko & Siemaszko 2000, 783) 체계적인 학살로 보위인 농촌 지역에서 수많은 폴란드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혼란 속에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 중에는 부상자들도 많았고 일부는 거의 반나체 차림으로, 마차에 짐을 싣거나 아니면 그저 맨몸으로 피신해왔다. 독일 점령 당국이 있는 도시에서는 아무리 우크라이나인들이라도 살상은 저지르지 못하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나치 당국에 의한 독일 본토로의 강제 이송이었다. 나치 점령 당국은 강제 노동에 동원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학살을 피해 도망 온 피난민들의 짐을 뺏고 본국으로 이송한 것이다. 도시에 남아있던 피난민 대다수도 기아에 허덕이다 좀 더 안전한 지역인 소폴란드 동쪽이나 루블린 지역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얼마 뒤 이들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운명을 겪게 된다.

1943년 후반기에 들어와 OUN-UPA의 학살이 소폴란드의 3개 주 지역으로 번져갔다. 이곳에서의 학살도 보위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개인과 가족 단위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해서, 1944년 초부터는 우크라이나 농촌 사이에 위치한 폴란드 마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보위인보다 반년 늦은 1944년 전반기에 이르러, 소폴란드 지역 학살이 절정에 달했다. 그 후에도 많은 마을들이, 특히 타르노폴 지역의 농촌들이 1945년에 들어와 여러 차례에 걸친 공격에 시달렸다. 보위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민족 단체들의 대대적인 공격과 학살로 인해, 소폴란드에 살던 폴란드인들이 도시로, 그런 후 다시 서쪽으로 대거 탈출해갔다. 갈리츠야에는 보위인보다 폴란드인들이 더 많이 살았고, 그래서 이곳에서의 공격과 학살은 더 오래 걸쳐 진행됐다. OUN-UPA의 공격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무엇보다 신자들 사이에서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외에 성당 건물과 묘지 등도 철저히 파괴됐다. 학살이 진행된 지역 전체에서 95명의 신부가 살해됐다. 이중 67명은 소폴란드 교구 출신 신부들이었다.

소련 군대가 소위 폴란드 동부 변경 지대로부터 독일을 격퇴시키는 1944년부터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다. 기존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학살과 동시에 보위인과 소폴란드 지역에서 폴란드인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이 실시된 것이다. 크렘린에 의해 급조된 폴란드 공산주의 정부가 소련과 협정을 맺어, 1946년까지 이 지역에 살던 폴란드인들을 현재 폴란드 영토 안으로 강제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그런 후 알타 회담에 근거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들이 학살을 자행한 대다수 지역이 소련으로 넘어갔다. 때문에 이 지역에 남아있던 폴란드인들은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인들이 원하던 독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고, 따라서 학살도 당연히 멈추어야 했다. 하지만 폴란드인을 제거한다는 원칙은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됐다. 이는 1945년 타

르노폴에서 일어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잘 증명하고 있다. UPA가 벨레시니우프(Weleśniów) 마을에서 이주자 명부를 작성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은 뒤 46명의 남자들을 살해하고, 쉼르보노그루드(Czerwonogród) 마을에서는 이주 전날 밤에 38명이 살해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며 집과 건물이 소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Siemaszko & Siemaszko 2000, 1045; Korman 2003, 95)

1939-1946년 사이 OUN과 UPA 그리고 이들과 공조하던 우크라이나 농민 부대가 보위인과 소폴란드 지역에서 모두 12만 명의 폴란드인을 살해했다. 희생자들 중에는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포함됐으며, 수천 개에 달하는 폴란드 농촌과 수십만에 이르는 가정도 함께 파괴됐다. 보위인과 소폴란드 지역에서 OUN-UPA가 자행한 학살은 그 잔인함과 규모로 인해 폴란드에서 인종 학살로 규정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내세운 이데올로기, 진행 과정, 범위와 규모 등은 모두 보위인 학살이 폴란드 민족을 말살시킨다는 목적 하에 사전에 조직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보위인 학살은 1948년 유엔이 제정한 인종 학살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약에 비추어볼 때 인종 학살로 규정될 수 있다. OUN-UPA가 자행한 보위인 학살을 거론할 때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강조돼야한다. 첫째, 보위인과 소폴란드 지역에서 OUN-UPA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연령이나 성별과는 상관없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폴란드 학자인 샤브위프스키(R. Szawłowski) 교수는 보위인 학살을 “만행 학살(Genocidium atrox)”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보위인 학살로 인해 수 백 년에 걸쳐 존재하던 폴란드인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의 학살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가 아르메니아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학살과 아주 유사하다. 게다가 터키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또한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도 2) 보위인주 내 11개 군: 루보몰(Luboml, Любомль), 코벨(Kowel, Ковель), 사르니(Sarny, Сарн и), 브워취미에쉬(Włodzimierz, Володимир), 우츠크(Łuck, Луцьк), 코스토폴(Kostopol, Костопіль), 호로후프(Horochów, Горохів), 두브노(Dubno, Дубно), 루브네(Równe, Рівне), 즈도우부누프(Zdołbunów, Здолбунів), 크체미에니에츠(Krzemieniec, Кременець)

IV.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와 OUN-UPA

보위인 학살을 위시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간에 벌어진 수없이 많은 격돌과 충돌의 근원에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던 목표는 자신들만의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이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만든 조직이 바로 OUN과 UPA이다.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 폴란드-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진 반목과 적대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이념은 물론이거니와 이 이념의 실행 기구인 OUN과 UPA에 대한 고찰 또한 필수적이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기저에는 사회다윈주의 이념이 스며들었다. 위에 언급한 드미트로 돈초프가 이런 이념과 사상의 근원이자 시작점이다. 돈초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념과 사상을 바꾸면서 우크라이나만의 고유한 길을 모색했다. 돈초프는 르부프에 정착해서 자신의 민족적 관점을 책으로 발표했다. 돈초프의 주저서는 1926년에 출간된 『민족주의』였으며, 이외에도 히틀러의 『나의 투쟁』과 괴벨스와 로젠베르크의 글을 우크라이나어로 번역 출판했다. 돈초프는 사회 계층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건강한 계급은 농민이라고 생각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의 선두에는 “능동적이고 용감하며 권력욕에 불타는, 이념으로 무장된 열광적인 소수 엘리트 집단”이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 민족은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하고, 외교는 민족의 이름으로 수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Kubasik 1999, 26, 27; Motyka 1999, 33) 돈초프는 무력을 선택하며 민주주의를 포기했다. 돈초프는 서우크라이나인민공화국의 붕괴와 함께 서유럽에서 일어난 파시스트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에서도 단합된 민족주의가 탄생한다고 예견했다.

1920년대 중반에 우크라이나군사조직(UWO)이 기존의 다양한 민족주의 기구를 자신의 밑으로 통합시키려 했다. 1925년 11월 12일 체코 프라하에서 우크라이나 3대 망명 단체인 우크라이나파시스트연합(ZUF), 우크라이나민족통일(UNZ), 우크라이나해방연합(ZWU)이 통합해서 미코와 스킨보르스키(Mykoła Sciborski, Мико́ла Сцібо́рський, 1897-1941)를 지도자로 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연맹(LUN)을 결성했다. 연맹은 우크라이나 민족이 사는 지역을 영토로 하는 국가 창설을 목표로 삼았다. 1926년에는 장차 OUN의 지도자가 되는 스테판 반데라(Stepan Bandera, Степан Бандера, 1909-1959) 등이 오십 보드나로비쯔(Osyp Bodnarowycz, 1895-1944)를 수장으로 하는 우크라이나청년민족협회(SUMN)를 창설했다. 이들의 본거지는 르부프에 있는 대학교의 기숙사였다.(Motyka 1999, 58) 협회의 젊은 민족주의자들은 지하 간행물 유포, 폴란드 국가 행사 방해하기, 우크라이나 기념일 조직하기 등과 같은 활동을 펼쳤다.(Torzecki 1989, 64, 65) 1927년 11월 3-7일 사이 LUN이 개최한 회의에서, 모든 민족주의 단체들이 모이는 총회를 준비할 기관으로 소위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프로비드(Prowid PUN)를 발족시켰다. 1927년 말 베를린에서 해외 우크라이나 단체를 통합하자는 결정이 내려지고, 1929년 1월말에서 2월초 사이에 열린 빈 총회에서 이 결정이 현실화됐다. 즉 UWO, PUN, SUMN 등이 모여 중세 기사단을 본 따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들협회(OUN)를 창설했다.(Prus 1985, 120)

1. 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들협회(OUN, OYH)

OUN은 폴란드와 소련 영토에 속하는 지역에 자신들만의 독립 국가를 세우려던 정치, 군사 성격을 갖는 우크라이나 민족 기구로 이들은 반폴란드, 반소련, 반공산주의를 표방했다. 1929년 1월 27일-2월 3일 빈에서 열린 제1차 총회에서, 급진적인 세 개의 우크라이나 망명 단체인 UWU, SUMN, LUN이 합치면서 OUN이 탄생했다.(Motyka 2006, 48) OUN의 최고 권력은 총회에 있었다. 총회에서 대표들은 집행부인 Prowid OUN을 선출하고 정책과 조직 그리고 전술을 결정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총회가 소집됐다. OUN의 목표는 돈(Don)강에서 소폴란드 지역에 이르는 영토를 가지는 우크라이나 독립 국가를 세운다는 목표 하에 폴란드 그리고 소련과 투쟁하는데 있었다.

폴란드-우크라이나 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OUN은 폴란드 고위 인사를 저격하고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활동을 펼쳤다. 따라서 OUN은 창설할 때부터 폴란드에서 불법 단체로 간주되며 탄압의 대상이 됐다. 반면 OUN은 초기부터 독일 정보기관과 공조했다. 하지만 1934년 1월 폴란드-독일 무력금지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독일은 1938년까지 OUN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1939년 봄에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할 준비에 들어가며 OUN-독일 관계가 다시 활발해졌다. 1938년 5월 소련 비밀경찰(NKVD) 요원에 의해 OUN 지도자 예브헨 코노발레츠(Jewhen Konowalec, Євген Коновалець, 1891-1938)가 살해된 후, 1939년 8월 로마에서 개최된 제2차 총회에서 안드리이 멜닉(Andrij Melnyk, Андрій Мельник, 1890-1964)이 지도자로 선출됐다.(Wysocki 2003, 280)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에만해도 폴란드-우크라이나 관계가 한때 우호적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1938년에 폴란드 군사 독재 정권이 극우 정당과 손을 잡으며 이런 관계가 종결됐다. 이와 함께 폴란드 군대가 우크라이나 민족 단체를 대상으로 진압 작전을 펼쳤다.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정교 성당이 대대적으로 파괴되며, 몰락한 폴란드 지주들로 반우크라이나 세력을 조성하려는 시도도 강행됐다. 하지만 이 모든 결과는 1931년 통계로 450만 명에 이르는 폴란드 시민권을 가진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폴란드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해 살던 폴란드인들에게로 증오심을 확대시켰을 뿐이었다.(Snyder 2008, 197-222) 폴란드의 무력 사용이 보위인 지역으로 확대되며 이 지역에 대한 OUN의 영향력도 확대됐다. 이런 점은 장차 2차 대전이 발발한 이후 폴란드 정권이 이 지역에서 사라지는 때가 오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939년 9월 17일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한 후 합법적인 우크라이나 정당들은 NKVD의 탄압을 피해 자발적으로 해체했다. 그 결과 2차 대전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활동을 펼치던 단체는, 비밀 지하 조직으로 활동하던 OUN이 유일했다.

1939년 9월 웨프 레벤프(Lew Rebet, Лев Ребет, 1912-1957)의 사회로 열린 OUN 국내집행부가 독일을 돕는 교란 작전으로 반폴란드 봉기를 시작하라는, 멜닉이 지휘하던 OUN 국제부의 명령 수행을 거절했다. 레벤프는 리베트로프-몰로토프조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이런 작전은 단지, 우크라이나의 주적으로 간주되던 소련만을 돕는다고 주장했다. 반테라를 대신해서 레벤프가 내린 결정으로 OUN이 두 개의 분파로 갈라지게 됐다. 당시 스테판 반테라는 폴란드 내무장관 저

격 사건의 배후 주동자로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다. 2차 대전이 발발한 후 감옥에서 풀려난 반데라는 레베트의 결정을 지지했다. 반데라는 1940년 2월 9-10일에 OUN 전국대회를 소집해서 멜닌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주장이 실현되지 않자 1940년 7월 반데라파는 폴란드 크라쿠프(Kraków)에서 별도로 전체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두 개의 분파로 OUN이 갈라섰다. 그중 하나인 멜닌파는 지도자의 이름을 따 OUN-M으로 불린다. 멜닌 지지자들은 기존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며, 무엇보다 나치 독일의 협조자로 남길 원했다. 또 다른 분파는 반데라파라 불리기도 하는 OUN-B인데, 이것 역시 지도자의 이름에서 명칭이 유래한다. 반데라파는 OUN-R 즉 혁명파로도 불리는데 반데라 외에, 레베트와 야로스와프 스테치코(Jarosław Stećko, Ярослав Стецько, 1912-1986) 등이 이 조직에 참여했다. 바로 이 반데라파가 UPA의 지원 하에 폴란드 민족 학살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보위인 학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Motyka 2008)

OUN은 1939년부터 공개적으로 나치에 협조했다. 이는 독일군의 지휘를 받는 우크라이나군단을 창설하고, 1941년 소련과의 전쟁 준비를 위한 일환으로 별도의 부대를 창설하려 시도한 사실들로 증명된다. 독일 군정보부의 후원으로 1939년에 멜닌 부대로 창설된 우크라이나군단 창설은 단기간에 걸친 에피소드로 끝났다. 동갈리츠야에서 반폴란드 봉기를 거부한 레베트의 결정과 소련의 폴란드 공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필요 없게 되면서 독일이 결국 이 군단을 해체한 것이다. 1942년 2월 멜닌파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조직에 충성하는 우크라이나 경찰대 창설을 주도했다. 멜닌파를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실패한 뒤, 1943년 7월 7일 반데라파의 공격으로 멜닌 부대가 와해됐다. 반데라파는 멜닌 지휘부를 감금한 뒤 복종을 거부하는 자는 사살했다. 이후에도 멜닌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잔존하나, 그 세력은 이제 미미할 뿐이었다.

반데라파는 전전부터 이미 OUN내에 분파로 존재하고 있었다. 지도자인 코노발레츠의 권위로 OUN이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38년 5월 코노발레츠가 살해되면서 이제 분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반데라파는 사회적이거나 민족적인 관점에서 멜닌파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 반데라파의 급진적 민족주의는 독일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려던 시도에서 기인한다. OUN-B는 나치 독일과의 관계를 상하 종속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전술적 연맹으로 간주했다. 전쟁 초기에 독일이 카르파티아 루테니아 지역을 헝가리에 넘겨주고, 갈리츠야 지역을 나치총독부에 합치면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판도에 일대 전환이 왔다. 즉 독일이 조만간 우크라이나 국가를 세워주지 않는다는 점이 확연해지면서, 반데라파가 독일과의 공조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전쟁 초기인 만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던, 반데라파 지도부가 당분간은 독일과의 공조 유지 결정을 내렸다. 1941년 6월 독일 군대와 함께 3-5천여 명이 이르는 OUN-B 부대도 소련 공격에 나섰다. 이들은 최단 시간 내에 르부프에 도착해 우크라이나 독립을 선포한 뒤, 경찰과 행정부를 창설하라는 임무를 하달 받았다. 마침내 OUN-B 부대가 르부프에 입성하고, 스테판 반데라가 우크라이나 독립을 선포했다. 총대주교 안드리아 웨프티츠키(Andrij Szeptycki, Андрій Шептицький, 1865-1944)로부터 지지를 얻은 OUN-B가 우크라이나 민족위원회(Ukrajinskyj Narodnyj Komitet, UNK)를 조직하며, 반데라의 측근인 스테치코가 정부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가는 단 12일만 존재했을 뿐이다. 정부 구성원 전체가 독일 당국에 의해 체포된 것이다. 슬라브 민족 전체를 나치 제국의 종으로 만들 계획이

던, 히틀러에게 우크라이나 건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던 것이다. 1941년 8월 중순 독일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된 OUN-B 지도부를 체포하며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 독일 당국은 1942년 1월까지 반데라파 부대원 3백여 명을 체포해 감금했다. 나머지 세력은 지하로 잠적했다. 한편 1941년 9월 베를린에 있는 예전 폴란드대사관 건물에서 독일 정보부와 OUN-B 대표단이 협상을 가졌다. 반데라와 스테치코는 독립 선언을 철회하라는 독일의 최후통첩을 거부했다. 그런 후 두 사람은 체포돼 작센하우젠에 있는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다.

전선 상황이 독일에게 불리해지며 1944년 9월에 감금돼있던 OUN-B 지도부와 함께 반데라와 스테치코가 풀려났다. 12월부터 반데라가 독일과 다시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1945년 3월 17일 우크라이나민족위원회가 설립되고, 이 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우크라이나군대도 창설됐다. 하지만 이미 독일의 패전은 피할 수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전후 OUN은 외국으로 망명했다. OUN 지도자인 레베트는 1957년에, 반데라는 1959년에 소련 정보부가 파견한 암살자에 의해 모두 망명지에서 저격됐다. 레베트와 반데라를 암살한 KGB 요원 보흐단 스타쉴스키(Bohdan Staszynski)가 미국으로 망명한 뒤, 증언한 바에 따르면 스테치코가 다음 목표였다고 한다. 반데라파는 해외 망명지에서 조직을 재결성해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던 중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1990년부터 우크라이나로 귀국하기 시작해, 1992년에 다른 조직과 함께 우크라이나민족주의연합을 결성했다.

2. 우크라이나봉기군(UPA, УПА)

UPA는 1942년 말 반데라파에 의해 창설된 OUN의 무력 기구로, 주로 보위인과 동갈리츠야 그리고 전후에는 폴란드 동남부 지역을 무대로 활동했다. UPA는 우크라이나 독립을 목표로 소련, 폴란드, 독일 부대와 전투를 치렀다. 특히 독일과는 적과 동지 관계를 반복하며 소련 부대에 맞서 지역적으로 공동 전선을 펴기도 했으며, 1944년 이후에는 독일로부터 장비를 제공받기도 했다. 특히 OUN과 함께 폴란드인 대량 학살의 공동 주범이 바로 UPA였다.(Encyklopedia wojskowa 2007, 393)

1942년 초까지만 해도 OUN 내에서는 독일 당국의 통제 하에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탄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독자적으로 별도의 OUN 부대를 만드는 것은 도발 행위로 간주됐다. 한편 1941년 말에 들어와 독일군이 전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우크라이나가 필요 없게 됐다. 그러면서 히틀러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부한 독일군 산하 우크라이나 부대가 해체되고, 이들 중 일부는 독일 당국의 통제를 받는 우크라이나경찰대에 합류됐다. 독일 당국이 OUN 지도부를 대대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그 결과 1942년 4월에 개최된 OUN제2차총회에서는 소련뿐만 아니라 독일도 적으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같은 해 10월에 독일 점령 당국에 대한 첫 번째 공격으로 르부프에서 독일 장교 2명이 살해됐다. 독일은 그 보복으로 우크라이나인 100명을 총살했다. 그 후로도 독일 장교에 대한 암살이 계속되고, 그럴 때마다 독일 당국도 보복으로 백여 명씩 총살했다. 1942년 여름에 들어와 또 다시 독일 당국이 OUN 지도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펼쳤다. 그러자 1942년 말 르부프 근처에서 OUN-B 지휘관

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OUN-SD(Samostijnikiw Derżawnikiw)라는 명칭 하에 빨치산 부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10월 14일에 폴레시에(Polesie, Полісся, Polesia)⁸⁾에서 첫 번째 OUN-SD 부대가 창설됐다. 두 번째 부대는 보위인에 만들어지고, 1943년 2월에 세 번째 부대가 창설됐다. 1943년 봄에 들어오며 OUN-SD가 보위인과 폴레시에에서 활동 중인 우크라이나 빨치산 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1943년 3월에는 OUN-B 지도부가 우크라이나경찰을 탈영해 UPA에 입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체포돼 총살된다고 선포했다. 이 명령에 따라 5천여 명의 잘 훈련된 경찰이 입대하면서 UPA의 세력이 급격히 커졌다. 이와 동시에 UPA 지휘부는 정규전이 아닌 빨치산 투쟁을 위주로 하는 전술을 구사했다. 독일과의 정규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현명한 결정이었다. 독일 점령 당국의 행정 기구, 파출소, 식량 수송 등이 UPA 공격의 대상이었다. 1943년 초 1만5천여 명에 이르던 UPA는 연말에 이르면 2만여 명으로 증원됐다. 이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계열의 다른 전투 조직을 통합하며, 1944년 봄에 UPA 세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최대 3만5천여 명에 달했다.(Bilas 1994, 460-464) UPA가 다른 빨치산 부대를 통합하던 와중인 1943년 8월에 UPA라는 명칭도 탄생했다. 즉 타라스 불바(Taras Bulba, Тарас Бульба)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타라스 보로베치(Taras Borowec, Тарас Боровець, 1908-1981)가 지휘하던 부대를 강제로 합류시킨 뒤, 이 부대가 사용하던 UPA 이름을 자신의 부대 명칭으로 도입한 것이다.

1943년 2월부터 UPA가 보위인에 거주하던 폴란드인 학살을 시작했다. 1943년 7월과 8월에 절정에 달하던 학살은 1944년 2월까지 계속되며, 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보위인에서만 5-6만 명의 폴란드인이 UPA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1943년 말에 공격의 물결이 동갈리츠야 즉 소폴란드 동쪽 지역으로 옮겨가며, 다시 3-4만 명이 목숨을 잃고 40만 명에 이르는 피난민이 독일 점령 총독부령으로 도망갔다.(Torzecki 1993, 267) 전후에도 UPA는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폴란드 부대와 전투를 치르며 경찰서와 농촌을 공격했다. 특히 전후 폴란드 내 우크라이나인들을 소련으로 강제 이주시키기 위해, 1944-1946년 사이에 진행된 비스와 작전 당시 방해 공작을 활발히 펼쳤다. 소련 지역에서도 UPA는 정규 군대는 물론이고 경찰, KGB 등과도 전투를 치렀다. 특히 우크라이나인을 소련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던 1945-1946년 사이에, UPA가 기차역과 선로를 파괴하고 이주위원회를 공격하는 등 최대 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비스와 작전이 종료되는 1947년에 폴란드 군대로부터 최후의 일격을 당하며, 폴란드 지역에서 UPA 활동이 사라졌다. 소련 지역에서는 1956년에 UPA의 마지막 부대가 소탕됐다.

한편 소련 당국이 만든 사이비 UPA 부대가 전쟁 말기에 활동했다는 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 우크라이나 문서고에서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1944-1950년 사이 UPA가 저지른 범죄 중 일부는 소련 NKVD 특수 부대의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나왔다.⁹⁾ 이런 특수 부대는 그 대다수가 NKVD를 위해 일하던 예전 UPA 군인들

8) 현재 벨로루시와 만나는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 역사적 지명으로, 부분적으로는 폴란드와 러시아에도 걸쳐있다.

9) Informacja prasowa dotycząca podszywania się jednostek NKWD pod UPA, 『Gazeta Wyborcza』, 2007년 11월 30일자, <http://wiadomosci.gazeta.pl/>

로 조직된 것이다.(Bilas 1994, 470-477)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따르면 1954년까지 이런 특수 부대는 150여개에 이르며 총 1,800여명이 활동했다고 한다.¹⁰⁾ 이들의 목적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민족 분쟁을 야기하는 동시에 공산 정권에 반대되는 인물들을 제거하는데 있었다.¹¹⁾

V. 나오는 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보위인 학살은 단어조차 거론할 수 없는 터부였다. 소련이 주도하는 소비에트 블록에서 사회주의 단결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89년 폴란드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며, 적어도 보위인 문제에서만만큼은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보위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과 함께 관련 자료가 공개되고 수집되면서, 폴란드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서적들도 계속 출판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침내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믿은 폴란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당연히 공식 사과를 받으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폴란드로부터 억압을 받아왔다고 생각하던 우크라이나로서는, 보위인 문제는 오랜 식민지 끝에 독립을 찾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개 사건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인에게 안중근은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를 심판한 의사이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자국의 영웅을 암살한 테러리스트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는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고금의 진리가 여기에서도 통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 붕괴이후 폴란드-우크라이나 관계는 우호와 악화를 거듭했다. 1991년 12월 2일에 전 세계 최초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인정한 나라가 바로 폴란드였다. 이외에도 2004년 11-12월의 오렌지 혁명 당시 폴란드 대통령이 키예프를 방문하며 빅토르 유셴코를 지지한 적도 있다. 유로2012대회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공동 개최하기로 결정되며 양국 역사에서 일대 전환점이 도래한 듯했다. 하지만 양국 관계가 이렇듯 항상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2006년에 러시아가 폴란드의 육류 수입을 금지하는 성명을 발표할 때, 우크라이나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폴란드는 이런 우크라이나의 행보를 모스크바의 지시에 따른 반폴란드적 행위로 간주했다. 특히 보위인 사건에 관한 한 양국이 내세우는 주장은 매우 첨예하다. 2006년 10월 14일에 열린 UPA창설64주년행사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셴코가 UPA를 해방 운동으로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항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외에도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만만큼은 국가 독립을 위해 싸운 조직으로 인정되는, OUN-UPA 지도자들의 이름이 거리와 학교 이름으로 사용되며 기념비도 세워지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일부 단체는 폴란드 정부를 상대로 비스와 작전으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금 지불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반응은 매우 비판적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양국 지식인들을 중

10) <http://www.ukranews.com/>

11) Ukraiński IPN za odtajnieniem akt dotyczących UPA, 『Biuletyn OSW』, Numer 186, 2007년 10월 25일, <http://www.osw.waw.pl/>

심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해답을 모색하자고 나서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들이 살아있는 한, 보위인 학살에 대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양 민족이 모두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보인다.

참 고 문 헌

- 문명식(2001). "우크라이나의 민족문제와 러시아". 『슬라브연구』. 제17권 2호.
- 한국우크라이나학회(2009). 『우크라이나의 이해: 역사, 종교, 정치, 경제, 외교, 우크라이나의 모든 것. 씨네스트.
- 한정숙(2005). 『유랑시인: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시정』. 한길사.
- 홍석우(2008). 『우크라이나: 코자크와 오렌지혁명의 나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Bilas Ivan(1994). *Repressive-punishment system in Ukraine. 1917-1953*, Vol. 2. Kyiv.
- Cybulski Henryk(1974). *Czerwone noce*. Warszawa.
- Gawryś Cezary(1997). *Ścieżki ocalenia*. Warszawa.
- Grünberg Karol(1991). *Czas wojny 1939-1945: wykłady z historii*. Warszawa.
- Grünberg Karol & Sprengel Bolesław(2005). *Trudne sąsiedztwo, stosunki polsko-ukraińskie X-XX wieku*. Warszawa.
- Korman Aleksander(2003). *Ludobójstwo UPA na ludności polskiej*. Wrocław.
- Kubasik Adam(1999). *Arcybiskupa Andrzeja Szepczyckiego wizja ukraińskiego narodu, państwa i cerkwi*. Kraków.
- Motyka Grzegorz(1999). *Tak było w Bieszczadach: walki polsko-ukraińskie 1943-1948*. Warszawa.
- (2006). *Ukraińska partyzantka 1942-1960: działalność Organizacji Ukraińskich Nacjonalistów i Ukraińskiej Powstańczej Armii*. Warszawa.
- Peretiatkowicz Adam(1997). *Wołyńska samoobrona w dorzeczu Horynia*. Katowice.
- Prus Edward(1985). *Herosi spod znaku tryzuba: Konowalec-Bandera-Szuchewycz*. Warszawa.
- Serczyk Władysław(1979). *Historia Ukrainy*. Warszawa.
- Siemaszko Władysław & Siemaszko Ewa(2000). *Ludobójstwo dokonane przez nacjonalistów ukraińskich na ludności polskiej Wołynia 1939-1945*. Warszawa.
- Snyder Timothy(2008). *Tajna wojna. Henryk Józewski i polsko-sowiecka rozgrywka o Ukrainę*. Kraków.

Torzecki Ryszard(1989). *Kwestia ukraińska w Polsce w latach 1923-1929*. Kraków.

(1993). *Polacy i Ukraińcy. Sprawa ukraińska w czasie II wojny światowej na terenie II Rzeczypospolitej*. Warszawa.

Turowski Józef & Siemaszko Władysław(1990). *Zbrodnie nacjonalistów ukraińskich dokonane na ludności polskiej na Wołyniu 1939-1945*. Warszawa.

Wysocki Roman(2003). *Organizacja Ukraińskich Nacjonalistów w Polsce 1929-1938*. Lublin.

Encyklopedia wojskowa. Warszawa 2007.

Wojskowy Przegląd Historyczny. Warszawa 1988.

Informacja prasowa dotycząca podszywania się jednostek NKWD pod UPA. 『*Gazeta Wyborcza*』. 2007년 11월 30일자. <http://wiadomosci.gazeta.pl/> (검색일: 2009. 12. 11)

Motyka Grzegorz(2008). Zapomnijcie o Giedroyciu: Polacy, Ukraińcy, IPN. 『*Gazeta Wyborcza*』. 2008년 12월 17일자. <http://wiadomosci.gazeta.pl/> (검색일: 2009. 12. 18)

Ukraiński IPN za odtajnieniem akt dotyczących UPA. 『*Biuletyn OSW*』. Numer 186. 2007년 10월 25일. <http://www.osw.waw.pl/> (검색일: 2010. 2. 13)

<http://www.ukranews.com/> (검색일: 2009. 12. 23)

Abstract

A Study on the Past Affairs between Poland-Ukraina: The Massacres of Poles in Volhynia

Kim Yong-Deog*

The Massacres of Poles in Volhynia were part of an ethnic cleansing operation in Volhynia(now in western Ukraine) and Eastern Galicia, that took place beginning in 1939 and lasted until the end of 1946. The actions, orchestrated and conducted in most part by the Ukrainian Insurgent Army(UPA) together with other Ukrainian groups and local Ukrainian peasants, resulted in over 1,200,000 Polish civilians being brutally murdered in Volhynia Voivodeship with another voivodeships affected, specially in Eastern Galicia. The peak of the massacres took place in July and August 1943, when a UPA commander ordered the extermination of the entire Polish population between 16 and 60 years of age. The slaughter was directly linked with the policies of the Bandera faction of the Organization of Ukrainian Nationalists(OUN), whose goal, specified at the Second Conference of the OUN-B, was to purge all non-Ukrainians from the future Ukrainian state. The number of casualties is being actively researched and continues to be the subject of scholarly as well as political deliberation.

The question of official acknowledgment of the ethnic cleansing remains a matter of a discussion between Polish and Ukrainian historians and political leaders. Efforts are ongoing to bring about reconciliation between Poles and Ukrainians regarding these tragic events.

■ 논문접수일 : 2010년 3월 10일, 논문심사일 : 2010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 2010년 4월 20일

* Lectur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